

‘길 위의 10보 1배’ ...

보광 스님 (부산 초읍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 1987년 통도사에서 인산 지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통도사와 범어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직지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어 통도사 포교·교무 과장 및 원주를 역임했다. 현재 부산 불광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지역 내 활발한 포교활동 뿐 아니라 라오스에 학교 건립 등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보광 스님(부산 초읍 불광사 주지)은 백담사에서 설악산 봉정암까지 10보 1배 참회 순례 기도를 했다. 이후 20여 차례 백담사와 봉정암을 오가며 참회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부산에서 봉정암까지 대장정의 순례를 두 번이나 감행했다. 10보 1배는 스님의 수행 여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참회와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원력을 강하게 세운다. 그리고 스님은 그 원력을 차근차근 실천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지역사회 자비 나눔 실천은 물론 최근 라오스 학교 건립 등으로 동체대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보광 스님을 3월 3일 만났다. 스님은 현재,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을 조직해 라오스 학교건립, 계몽 사업 등의 해외사업은 물론, 국내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장학사업, 군포교 등 국내에서의 자비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0보 1배의 순례로 자비나눔의 원력을 세우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보광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라오스에 새 학교를 짓다
보광사 중무소 입구에 들어서니 스케치북과 신발 등 어린이 용품들이 가득한 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보낼 선물이라고 했다. 스님은 3월말 라오스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중이다. 라오스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듯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모두가 환하고 밝은 얼굴이었다.

“참 맑은 아이들입니다. 이 얼굴들이 항상 빛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도 아이들과 같은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스님이 라오스 반비엠크 교구 반티온 초등학교를 방문한 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광사 거사림 회 신도의 권유로 현지 어린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 뒤에서는 어두운 현실이 있었다. 대나무로 대충 엮어 만든 교실에는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빗물이 떨어졌고 칠판은 썩어 갔다. 교과서가 없어 제대로 된 공부도 할 수 없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절반 이상은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오렌지 농장에 취직해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 평균 6~7만원이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여자 아이들은 물론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매춘으로 내몰렸다. 해맑은 아이들 이면에는 그런 어두운 현실이 있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을 통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죠.”

결심은 곧 실천으로 옮겨졌다. 사비를 모았고 기부금을 모연했다. 특히, 2012년에는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을 조직했다. 북카페를 운영하며 수익금으로 학교 건립에 힘을 모았다.

이렇게 모연금이 모아지자 2014년 드디어 반티온 초등학교 공사에 들어갔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차량이 들어가려면 진흙 구멍이를 지나야 했어요. 운송비도 많이 들었죠. 여기에 라오스 인부들은 작업속도가 너무 느려 고생을 많이 했죠. 이런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학교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6월, 13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6칸

의 교실을 갖춘 학교가 완성되었다. 시골에서 보기 드문 현대식 건물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누구나 오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 아침마다 6km를 걸어오는 학생, 오전 6시면 학교 문을 두드리는 아이, 학교를 마치고도 좀더 놀기 위해 학교에 머무르는 아이도 있었다.

이후 스님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위한 위드교육을 마련했고, 수도 펌프 설치와 우물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보광 스님은 앞으로 계몽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스님은 농장 설립과 여행상품 개발 등을 통해 현지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고등학교 건립까지 계획하고 있다.

전국 순례하며 참회정진 발원
부산서 설악산 봉정암까지 순례
64일간 10보 1배 오체투지로 전법 포교
최근, 순례담 <길 위의 64일>로 출간

이웃과 함께하는 삶 구현
보광사서 월2회 어르신 초청 무료급식
매월 10만원씩 초중고생 5명에 장학금
군장병들 빵 보시... 3월부터 군포교 재개

동체대비의 삶을 실천하다
2012년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 조직
2014년 라오스 반티온 초등학교 불사
인근 마을 수도 펌프 설치와 우물사업도

“염소와 돼지를 키울 수 있는 농장을 설립해 치즈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숙박과 관광 등을 겸한 ‘힐링캠프’ (가칭)라는 여행 상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익금을 적립해 중고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스님은 라오스 반티온에서는 속가의 이름을 사용한다.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서는 스님을 너무 어렵게 대하기 때문에 승복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속가 성인 이(李) 씨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이 모두가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보 1배 기도의 힘으로 보시행 펼쳐
스님이 끊임없는 보시행에는 ‘10보 1배’ 순례기

도가 큰 힘이 되었다.

“제가 2004년에 봉정암에 올라가 일년동안 기도 정진을 했어요. 그후에 은사 스님의 권유로 지금의 주지 소임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다 TV에서 우연히 차마고도의 3보 1배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차마고도를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순례객들의 모습을 보며 수행자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스스로의 신심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간 수행자로 살겠다는 발원이 퇴색된 것은 아닌지.

2007년, 스님은 재가자 3명과 함께 처음으로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이르는 10보 1배를 진행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천수경(千手經)에 나오는 십악참회(十惡懺悔)를 마음에 새겼다. 탐애중죄 금일참회, 진애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스님은 지난날의 과오를 떠올렸다.

“한 때 제 별명이 이수라였습니다. 힘도 좋아서 자신 만만했고 마음에 안 들면 감정적으로 대처했죠. 한마디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모두 참회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 흐느껴 울 때도 있었어요. 그동안의 어리석은 행동이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힘들어 돌로 머리를 내리치고 싶을 정도였죠.”

이후 스님은 참가자들을 모집해 20여 차례 백담사부터 봉정암까지 10보 1배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자들도 늘어났다. 초등학교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참여했고 순례 기도를 거쳐간 이들은 200여 명에 이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참가자는 김해에서 오신 보살님이었는데 테 추추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셔서요. 제가 말렸지만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한번 해보겠냐며 어려운 몸을 이끌고 끝까지 순례를 마치셨죠. 그 후 두 번이나 더 순례에 참여를 하셨어요. 기도의 힘이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에 걸린 재가자 한 분도 3번이나 순례를 마쳤어요. 두 분 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이렇게 순례에 참여했던 불자들은 고난이 닥칠 때 순례 기도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어려움이 와도 당시를 떠올리면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당시 함께 기도했던 재가자들은 현재 스님이 이끌고 있는 ‘라오의 산들바람’ 봉사단으로 활약하는 이들이 많았죠. 순례는 재가자들을 봉사의 길로 이끄는 계기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에는 부산 불광사를 출발, 통도사를 거쳐 설악산 봉정암까지 이르는 순례길에 올랐다. 외로이 홀로 가는 63일의 대장정이었다. 이어 2014년 9월 1일에는 도반스님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부산 불광사에서 출발해 총 64일에 걸쳐 봉정암까지 이르는 순례를 마쳤다.

이렇게 순례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스님은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을 실현하겠다는 마음이 더욱 더 간절해졌다. “도반 스님 한 분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념을 얻었다고 해요. 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일었습니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전법과 자비 나눔 원동력



스님은 2014년 6월 라오스 반비엤 근교 반티온 초등학교를 새롭게 짓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보광 스님은 10보 1배 참회 순례를 통해 이웃과 나누는 삶의 원력을 세웠다.



2014년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귀빈으로 초대, 라오스 총리에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보광 스님은 '라오의 산들 바람을 조적해 국내외 봉사활동을 펼친다.

다. 이 기도를 통해 점점 더 성숙해가는 자신을 만날 수 있었죠.”

스님은 이런 원력을 모아 국내의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저희 절 신도들은 생일을 맞으면 3만원의 보시금을 냅니다. 이를 모아서 독거노인 무료 급식을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급식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3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시죠. 또 이 보시금으로 100kg의 쌀을 30가구에 나눠주고 있기도 하죠.”

이밖에도 스님은 지역의 5명 초중고생을 지정, 매달 장학금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어르신 위로잔치도 열고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군부대에 빵을 지급할 예정이기도 하다.

아미타 48대원 발원... 48번 '10보 1배'가 꿈

스님의 목표는 아미타 48대원(阿彌陀 48大願)을 기준으로 48번의 '10보 1배' 순례기도를 마치는 것이다. 이런 발심 뒤에는 아미타 기도에 매진하고 있는 속가의 어머니이자 도반인 법장 스님의 역할이 컸다.

어머니는 가출할만큼 출가에 대한 신념이 남달랐다. 하지만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외삼촌이 수사장(?)을 가동해 어머니를 찾아내면서 출가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고 결국 결혼해 5남매를 낳았다. 보광 스님은 막내아들이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컸어요. 어머니는 집

에 방 한 칸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법당을 만들었죠. 매일 기도하고 참선을 하셨어요. 저희 남매들도 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출가를 권했다. 16살 나이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통도사로 들어왔다. 스스로 발심한 출가가 아니었기에 성당에서 배운 기도문을 외우며 반항하기도 했다. 그렇게 행자로 3년이 지났다. 절생활이 몸에 익어가니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심이 섰다. 스님의 나이 19세, 자연스럽게 출가를 했다. 법명은 보광이었다. 이렇게 아들의 출가에 이어 곧 어머니도 범어사 대성암으로 출가를 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법장 스님이 되었다.

“현재, 법장 스님은 세상이 85세가 되셨습니다. 아미타 기도를 하며 수행 여정을 마무리하고 계신데 저도 그 기도에 함께 마음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제가 10보 1배를 시작하게 된 큰 배경에는 이런 어머니의 뜻이 함께 담겨 있기도 합니다.”

스님은 지난 2월 27일 순례 이야기 책 <길 위의 64일>을 출간했다. 여기에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어머니 법장 스님에 얽힌 일화도 담겨 있다. “스님은 평생의 도반이자 스승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죠. 저의 영원한 멘토이고 관세음보살이죠. 경책으로 때로는 위로로 그렇게 제 옆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어머

니는 자비의 손길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태어난 부처님의 선물이니 낙담하지 말라며 용기와 위로를 주셨어요.”

이제 스님은 어머니 법장 스님의 조언대로 지옥에 빠진 중생을 건지고자 길을 나섰다. “그저 남은 삶을 봉사로 회향하고 싶을뿐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순례기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성장과 보살행 그것만이 평생의 원력이지요. 그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스님은 극락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듯하다. “많은 이들이 살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봉정암으로 오르는 순례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길이 곧 기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미 환희심에 스스로 해답을 얻게 되죠. 바람이, 또 장엄한 탑이, 산이 그 해답을 이야기해주죠. 그 자체가 곧 극락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산 아래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조차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극락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은 더불어 사는 극락세계를 발원하며 3월 28일 재가불자들과 함께 라오스로 또한번의 순례를 떠난다. 양 손에 문구용품과 신발 등의 선물을 한가득 든 스님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며 그들과 함께 극락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나는 태생이 존 사람이다. 출가 전까지 서울에 가본 적도 없었고, 출가 이후에도 특별한 용무가 없는 이상 서울에 가지 않았다. 거의 인생 대부분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살아왔다.

2013년 3월까지 나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에 자리한 비슬산 8대 적멸보궁 용연사에서 3년 넘게 총무 소임을 보고 있었다.

활중 스님은 2013년 1월 나에게 “서울 원각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아 사찰을 발전시켜달라”고 제안했다. 애초 나는 서울에서 주지를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스님의 제안에 고사했으나 계속 미루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 결국 제안을 승낙했다.

떠나는 날 활중 스님은 “존 사람이 서울에서 한 번 잘 살아봐”라며 배웅했고, 함

과 함께 많은 상념과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곳 원각사에서 도시생활에 맞는 도심포교와 지역주민들과 잘 화합해 전법포교도량으로 발돋움 해 나갈 수 있을까? 사찰의 초임주지 책임자가 되어 큰 살림과 대중화합 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까?

기말 곳은 부처님밖에 없었다. 고민을 붙잡고 매일 법당에서 기도했다. 5일정도 지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힘들어 포기하려 했던 마음을 관악산에 훌훌 날려 버렸다. 대신 원각사 발전을 위해 큰 다짐을 하고 서원을 세웠다.

내가 세운 서원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원각사 신도님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주지 스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1년 뜨내기가 아닌 4년 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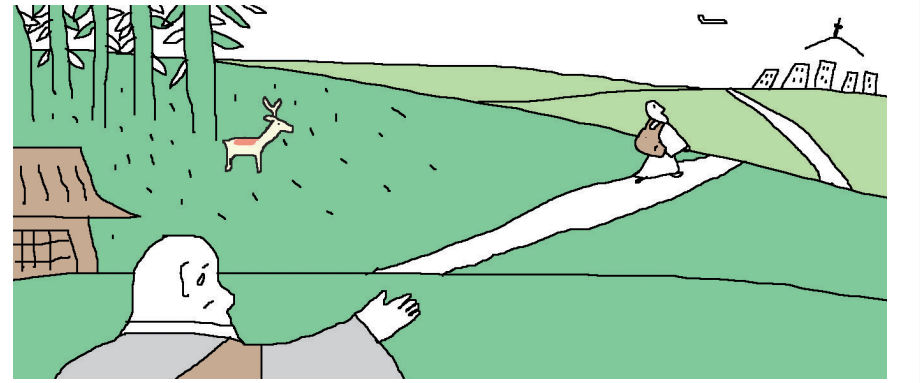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께 동고동락했던 사무장은 “총무 스님 축하드려요. 오늘부터는 ‘서울 스님’이시네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서울 스님? 그리 싫지는 않네요”라고 인사하고 서울로 가는 KTX에 몸을 실었다.

관악산 초입의 남현동 원각사에 도착 후 나는 길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도심사찰 원각사 주위에는 아파트 단지지와 상가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주민들의 오고가는 큰소리, 탑 차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등산객 등 생전 처음 겪어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또한 신도들은 잦은 주지 교체로 스님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질대로 커져 있었고, 여기에 주위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하루는 동네 상가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당신도 맹중이요”라고 물어보는 일도 있었다. 모멸감까지 들었지만 화를 낼 수 없었다. 일반 주민이 동네 사찰 스님에게 맹중이라고 불렀던 것은 지역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생애 첫 주지, 그것도 서울 도심사찰 주지인데 고생물이 열렸구나’라는 생각

채우는 스님이 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두 번째는 원각사 신도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상처 받은 신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역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진 원각사에 변화시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제 나도 어엿한 2년차 서울 사찰 주지이다. 굳은 서원을 세웠지만 처음 보는 주지 업무가 힘들어 남모르게 눈물도 흘려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눈물과 맑은 배신하지 않았고, 현재 원각사는 새로 신도회가 구성돼 안정과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린 것이다. 한 생각을 바꾸니 길이 열렸고, 서원이 생겼다. 정월대보름에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원각사배 풋볼이 대회를 개최한다. 몸은 바쁘고 힘들지만 즐겁다.

주지 부임 당시 초심과 서원을 잃지 않고 달리는 것도 포교의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새삼 되새겨 본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